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지슬'을 통해 깨달은 한국 현대사의 인식

최동호
시인·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흑백 영화 '지슬'을 인상 깊게 보았다. 음울한 화면에 펼쳐지는 리얼한 장면과 그곳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영상과 고통이 가슴 저리게 다가왔다. 누가 죄 없는 이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했는가. 영화가 끝나고도 관중은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영화가 주는 가슴 저린 감동 때문에 관중들은 무언가 여운을 가지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4·3 사건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정말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돌아 왔는데 '한라산'의 작가 현길언의 증언을 읽게 되었다.

제주 4·3 사건은 항쟁사가 아니라 수난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현길언의 주장이다. 현길언 자신이 4·3 사건 당시 아홉 살의 나이로 제주 남원을 수당리에 살다가 가족들과 20여 일 간 피난살이를 했고, 일가친척들이 수난을 당한 당사자라고 했다. 4·3 사

건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맞선 권력투쟁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수난사라는 것이 그의 증언이다.

현길언의 장편 '한라산'은 제주도민의 삶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다루고 있으며, 2003년 긴행된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서는 민속학자 고종민을 통하여 수평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변할 때 발생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역학적 구도로 인해 4·3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민족들의 희생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편의 작품은 모두 유사한 현실 인식을 보여 준다. 결국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현실의 괴곡과 변형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나 진실은 그대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4·3 사건은 뛰어어 일어난 6·25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한반도를 두고 권력 투쟁의 장으로 만든 거대한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2005년 소련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스탈린의 편지이다. 이 편지는 체코의 클레멘트 대통령에게 전하는 구두 명령으로 당시 프라하 주재 소련대사에게 보낸 스탈린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 스탈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대사 말리크가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한 부분이 있다. 소련대사가 헤

의에 참여하여 표결하지 않음으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주도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소련의 실책이었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의도적으로 미국을 한반도 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고, 중공군의 대거 투입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살육전이 되었던 것이다. 전쟁기간 동안 300만 명에 가까운 인명이 살상되었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의 피해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중국과 미국을 한반도에 불잡아 둘으로서 유럽에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고, 호시탐탐 동북아로 진출하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는 배후에 스탈린의 세 계전략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적화통일을 내세웠던 김일성 또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스탈린의 전략에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지슬'은 담담하게 사실을 그려내려고 했다는 점에 감동적이다. 그러나 역사나 사실의 해석에서는 부분적이다. 투쟁할 힘도, 이 유도 모르는 민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잊지 않고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은 후대의 의무이다.

'지슬'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분열과 통합의 과정에서 한국현대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시사한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세계 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과편적인 역사 인식에서 총체적인 역사인식으로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시각에서 '지슬'은 깊이 읊미되어야 한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생략되어 있음을 통해 관람자들은 사실의 한 면만을 두드려 지게 바라보게 된다. 한쪽을 통해 전체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본의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잘잘못을 편가르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할 말이 많을 것이다. 더 깊이 민족들의 체험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4·3의 진실이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이상하게 발효되어 의문을 증폭시켜 나갈 때 한국현대사는 부당하게 왜곡되고 비판하게 희생당한 민족들은 다시 정치권력의 이용률로 전락하기 쉽다.

'지슬'은 담담하게 사실을 그려내려고 했다는 점에 감동적이다. 그러나 역사나 사실의 해석에서는 부분적이다. 투쟁할 힘도, 이 유도 모르는 민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잊지 않고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은 후대의 의무이다.

'지슬'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분열과 통합의 과정에서 한국현대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시사한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세계 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과편적인 역사 인식에서 총체적인 역사인식으로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시각에서 '지슬'은 깊이 읊미되어야 한다.

의료칼럼

허리 관리 3계명

백금성
광주서우리병원 원장

사람이 일생 동안 허리 통증 없이 지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 통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허리 통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흔히 듣는 디스크 질환부터 척추 관절 문제, 근육과 인대 손상, 면역계 이상 및 전신 질환까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허리 통증 발생률이 서구 문화권에 비해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좌식 생활 습관에 있다. 아직까지 식사를 바닥에 앉아서 하는 가정과 식당이 많이 있으며, 텔레비전 시청을 할 때도 바

닥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가 의사에 앉을 경우에는 상체 무게가 허리와 다리에 분산이 되지만, 바닥에 앉게 되는 경우에는 상체 무게 대부분이 허리에 집중되게 된다. 이 경우 허리 디스크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허리 통증 유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외래에서 환자들이 침대에 앉거나 푹신한 방석에 앉는 것은 괜찮은지 질문을 하는데, 바닥이 딱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체의 무게가 허리에만 집중되지 않고 밭로 분산이 되는지 중요하다. 즉 푹신한 곳에 앉게 되면 엉덩이 주변 연부 조직들은 압력을 덜 받게 돼 이 부위는 좀 더 편할 수 있으나, 허리 디스크 내 압력 상승은 맨 바닥에 앉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가능한 밭이 바닥에 힘을 줄 수 있게 앉는 것이 허리 디스크 내 압력 상승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허리 통증 환자가 많은 이유는 푸르게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허리 디스크 내 압력 상승과 함께 허리 관절 및 근육에도 무게를 당하는 그만 둘 수 없어 참고

리를 준다. 아직까지 상당수 가정에서 조그려 앉아 방바닥을 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허리 통증 환자들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가능한 진공청소기나 밀대가 연결되어 있는 청소 도구를 이용해, 가능한 허리를 덜 숙이고 서서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부분의 농사일이 조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여서 시간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중단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숙여서 일을 하는 중간 중간에 스트레칭을 해 허리 근육과 인대의 피로를 풀어줘야 한다.

필자는 허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바닥에 앉지 말자. 둘째, 조그려 앉아서 일하는 것을 줄이자. 셋째, 30분에 한번 씩 일어서서 허리를 앞뒤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자. 이중에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세 번째이다.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허리를 아프게 하면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저마다 상황이 허리에 무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당장은 그만 둘 수 없어 참고

기고

어떻게 유치해놓은 인터넷진흥원인데…

나동팔
재광주나주항우회장·전 혁신도시지원단장

한반도에서 가장 오랜 역사의 땅, 나주. 이곳은 나주평야를 가르는 영산강 물줄기는 도도히 흐르고, 평화로운 사람들의 고향으로 인심 후한 남도의 따스한 고향지대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 나아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가 전국 균형발전임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됐었다.

미·일·중·러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가 등·서·간 화해와 균형발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북간 통일도 당연히 난제로 남을 것이다. 이는 노후민의 문제가 아니고 대

구·부산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지방의 문제로 귀결되는 일종의 커다란 사회현상이다.

모든 문화예술, 경제사회, 교육복지가 서울로 집중돼 발생한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도시 조성이 시작됐고,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비롯한 모든 정당이 동의한 사업이다.

광주·전남 공동으로 혁신도시에는 문화 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진흥원, 기업입주 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등이 들어선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단은 청산절차를 거쳐 통폐합, 한국 콘텐츠진흥원으로 탄생되고,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국제통신 국제협력진흥원이 통폐합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탄생, 총 16개 기관(여수 해양경찰학교 포함)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노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생겼으니,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서울 진주로 밀려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더불어 국가의 소관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뿐더러 응급조치나 같은 치약을 뿐더러보자는 심사인가? 왜 공

정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가슴적인 사람들이 점점에 앉아서 무책임한 인동을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대한민국이 KTX를 매개로 전국이 소통하는 시대가 됐다. 그에 따르면 기업, 대학, 연구소의 집적화는 양보할 수 없는 잇수가 돼 버렸다. 최근 인천은 GCF(국제기후변화 기금)라는 국제기구를 인천 송도에 두고, 유엔주립대학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여 국제제사 대회를 열고자 하는 것이다.

1700만 인구의 상하도시 상해(上海)에는 20층 이상의 사무실 빌딩이 7000개나 된다고 하니, 호남의 관문인 무안공항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나주혁신도시 입성은 국가장래를 보고 결정된 사업일 뿐 아니라 균형발전에 대한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다. 이를 쉽게 뒤엎고자하는 소식에 분노하고 있는, 노후민의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지역정보 보고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이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을 교정하거나 치료해야 하며,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하여 가정폭력을 영원히 뇌출사켜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집안 수색 권한을 대폭 확대시켰다. '위기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 의거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문 등을 열어볼 수도 있을 뿐더러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 출신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도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사건 처리 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경찰의 개입은 건강한 가정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학동

社說

민주 전당대회 계파싸움으로 전락해서야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5·4 전당대회가 결국 계파 대결과 노선 투쟁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혁신과 학합을 통해 새 출발을 하겠다는 다짐은 퇴색하고, 대선 패배를 둘러싼 책임론만 가득한 상황이다.

대선평가보고서가 나오면서 책임 여부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며 이번에는 당 강령 및 정책의 '우향우' 개정 방향과 대선자금 부실집행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도내체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이런 갈등 탓에 비주류의 김한길 후보와 범주류의 강기정, 이용섭 후보가 맞붙은 전당대회는 계파정치 청산과 변화·혁신이라는 세 후보의 공통 구호가 무색해 지고, 정책 대결 이슈도 막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김한길 대 반(反) 김한길'로 대변되는 친노·주류와 범주류 간 대치전선이 가팔리자면서 당 대표 선출이 계파의 대리전으로 흐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치관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우려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지

방재정의 위기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방 출대와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 예산을 지방에 떠넘긴 게 결정타가 됐다. 또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개발과 축제, 무분별한 낭비성 지출도 문제다.

지방재정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지방재정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사회복지 예산을 정부가 암아야 한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는 예산 심의·평가 등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단체장의 충보 수단으로 전락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파탄 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無等鼓

이러한 사실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서 포스코에너지 홈페이지가 누리꾼들의 집중 포화를 받는 등 사회적 문제화 되자 포스코에너지는 곧바로 A씨를 보좌해왔고, 23일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다.

안하무인(眼底無人)에 따른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안하무인이라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 여길을 이르는 말로, 방자무인(傍若無人)과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우리 속 단기운에 '고빠 풀린 망아지'란 표현이 있는데 무례하고 벌듯이 없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A씨는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입원의 자리에 오르고자 안하무인의 태도로 자신의 웅직임을 펼치지 못하고 파벌의 길을 걷게 됐다. 이번 '기내승무원 폭행' 사건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세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남긴 셈이다.

기내승무원 폭행 사건은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동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안법)로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가정폭력 칭피하다고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된다. 싸움은 단순한 갈등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범죄행위이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칭당화 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내 혹은 자녀는 자신의 소유물 또는 자기 소관으로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을 교정하거나 치료해야 하며,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하여 가정폭력을 영원히 뇌출사켜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집안 수색 권한을 대폭 확대시켰다. '위기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 의거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문 등을 열어볼 수도 있을 뿐더러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정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 출신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도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사건 처리 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경찰의 개입은 건강한 가정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학동